

쉽고, 빠르게 합격에 이르는 길! 알파 高 해원국어!

2016 국가직 7급 국어(2016. 8. 27.) 총평 및 해설

해원국어 고혜원

1. 문항별 분석

번호	내용	범위	번호	내용	범위
1	한글맞춤법	문법	11	언어예절	비문학
2	표준발음법	문법	12	언어의 기능	문법
3	문학 이론	문학	13	글의 순서	비문학
4	어휘(한자)	어휘	14	고전문학(가사) - 허전, <고공가>	문학
5	어법	문법	15	현대 소설 - 현진건, <운수 좋은 날>	문학
6	한시	문학	16	현대 시 - 천상병, <귀천>	문학
7	한자성어	어휘	17	일치, 불일치	비문학
8	한자어	어휘	18	고쳐 쓰기	비문학
9	고전문법	문학	19	유추(괄호 넣기)	비문학
10	한자성어	어휘	20	글의 전개	비문학

2. 분야별 분석

문법	비문학	문학	어휘 및 한자
4(20%)	6(30%)	6(30%)	4(20%)
단답형 지식 문제 8(40%)		박스형 지문 및 이해 12(60%)	

3. 전체 총평

1. 국어 전 범위에 걸쳐 고르게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문학과 어휘 및 한자의 문제가 대폭 증가**하였고, **한자와 비문학을 혼합하여 문제의 난도를 높였으며, 문법의 빈도가 다소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2016년 이미 치러진 '2016 국가직 9급'과도 공통된 특성이며 여타 다른 시험과도 공통된 양상이다. 즉 단순한 문법 위주의 학습이 아닌 국어 '**전 영역에 걸친 고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고득점과 합격을 위해서는 본인의 기호에 맞추어 국어의 특정 영역을 취사선택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물론 이미 기존의 수험생들이 선점하고 있는 문법의 영역을 기본적으로 다지는 것은 필수라 하겠다.

2. 단답형 지식 문제에 비해 **박스형 지문 및 이해 문제의 비율이 높았다**. 더불어 한 번에 이해되기보다 천천히 두어 번 읽어야 하는 지문도 있고, 문제의 초점 역시 단답형이 아닌 여러 내용을 복합적으로 묻는 문제가 있어서, **시험장에서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이해와 적용이 시험의 고득점의 필수 요소**이며,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통해 이해와 적용의 연습이 필수적**임을 일러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실제 시험장에서의 체감 난도는 비교적 높았을 것으로 예상되며 90점 이상 고득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문제풀이 및 여러 수업에서 **다른 동일한 문제와 동일 내용이 출제되었다**. 이론이나 특강 시간에 **다른 내용도 그대로 문제화되어 감사한 마음**이다. 더불어 다시 한 번 수업의 중요성을 실감한다.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함께 이러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수업의 현장에서 만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소망한다.

쉽고, 빠르게 합격에 이르는 길! 알파 高 해원국어!

1. 밑줄 친 단어 중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은?

- ① 대화는 열기를 띄기 시작했다.
- ② 여우도 제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다.
- ③ 아침에 찌은 쌀이라서 밥맛이 정말 고소하군요.
- ④ 아침부터 오던 비가 개이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다.

정답: ②

[해설]

주어가 '새도'인 것을 볼 때, '주로 조류가 보금자리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 살다./ 사람이나 건물 따위가 어디에 살거나 그곳에 자리 잡다.'란 의미를 가진 '깃들이다 - 깃들이고- 깃들이지 - 깃들이어(=깃들여) - **깃들일**'의 활용은 바르다.

※ '깃들다'는 '감정, 생각, 노력 따위가 어리거나 스미다.'의 의미로 사용한다.

[오답 정리]

① 띄기 → 띄기: '감정이나 기운 따위를 나타내다.'란 의미일 때는 '떠다'를 써야 한다. '띄다'는 '뜨이다'의 준말로, '뜨다'의 피동 혹은 ('눈에'와 함께 쓰여) '남보다 훨씬 두드러지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③ 찌은 → 찜은/찜: 발음은 [찌은]이 맞다. '찜다(곡식 따위를 쏙거나 빵으려고 절구에 담고 공이로 내리치다.)'의 어간 '찜-'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은'과 결합되는 과정에서 발음에는 'ㅎ' 음이 탈락현상이 나타나지만, 표기는 형태를 밝혀 적어야 한다. 따라서 '찜은'으로 표기해야 한다. 혹은 의미상 '김으로 익히거나 데우다'의 '찌다'를 활용한다면, 표기는 '찌다 - 찜'이 되어야 한다.

④ 개이고 → 개고: '흐리거나 궂은 날씨가 맑아지다.'란 뜻을 가진 말은 '개다'이다. 따라서 '개고'가 올바른 표기이다. ※ '개이다'는 존재하지 않는 말이다.

2. 표준 발음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솜이불[솜:니불]
- ② 직행열차[지캐열차]
- ③ 내복약[내:봉낙]
- ④ 막일[망닐]

정답: ②

[해설]

· 직행열차[지캐열차 → 지캐널차]: '직행열차'는 '직행[지캐]+열차[열차]'가 합쳐진 합성어이다. 앞말 '직행[지캐]'은 받침소리를 갖고 있고, 뒷말 '열차[열차]'는 'y'계 모음(ㅣ,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으로 시작하므로, 'ㄴ'첨가의 환경이다. 따라서 'ㄴ'음을 첨가한 [지캐널차]가 표준발음이다.

※ 공식! 복합어(합성어 또는 파생어)의 앞의 말에 받침이 있고, 뒤의 글자가 'ㅣ,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로 시작되면 ㄴ첨가 현상이 나타나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된다.

[오답 정리]

① '솜이불'은 '솜+이불'이 합쳐진 합성어이다. 이 역시 ②의 '직행열차'와 마찬가지로 'ㄴ'첨가

쉽고, 빠르게 합격에 이르는 길! 알파 高 해원국어!

의 환경이므로, ‘ㄴ’음이 첨가된 [숨:니불]은 표준발음이다.

③ ‘내복약’은 ‘내복+약’의 낱말로, [내:복약→(ㄴ첨가)→내:복낙→(비음동화)→내:봉낙]의 과정을 거쳐 발음된다.

④ ‘막일’은 ‘막(접사) + 일’의 파생어로 [막일→(ㄴ첨가)→막닐→(비음동화)→망닐]의 과정을 거쳐 발음된다.

3.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어떤 사물을 역사적 인물처럼 의인화하여 그 가계와 생애 및 개인적 성품, 공과(功過)를 기록하는 전기(傳記) 형식의 글을 ()이라고 한다. 거북 . 대나무 . 지팡이 . 술 . 돈 따위의 동물이나 식물, 생활에 필요한 물건 같은 사물을 의인화해 그 생애를 서술한다.

- ① 평전(評傳)
- ② 열전(列傳)
- ③ 가전(假傳)
- ④ 실전(實傳)

정답: ③

[해설]

· 사물을 역사적 인물처럼 의인화하고, 전기(傳記) 형식을 따른 글은 ‘가전(假傳)’이다.
- ‘가전(假傳)’ 혹은 ‘가전체(假傳體)’라 불리는 장르는 ㉠ 사물을 의인화하여, ㉡ 전기(傳記) 형식으로 서술하는 문학 양식으로 ㉢ 고려 중기 이후에 성행하였으며, ㉣ 임춘(林椿)의 <국순전>, <공방전>이나 이규보(李奎報)의 <국선생전> 따위가 여기에 속한다.

[오답 정리]

- ① 평전(評傳): 개인의 일생에 대하여 평론을 곁들여 적은 전기.
- ② 열전(列傳): ㉠ 여러 사람의 전기(傳記)를 차례로 벌여서 기록한 책.
 - ㉡ 역사에서, 임금을 제외한 사람들의 전기를 차례로 적어서 벌여 놓은 기전체 기록.
- ④ 실전(實傳): ㉠ 실제의 전승이나 전기.
 - ㉡ 어떤 종교의 교의에 관한 전승.

4.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어색한 문장은?

- ① 작가는 작품으로 말할 뿐, 그 밖의 것은 모두 贅언(贅言)에 불과하다.
- ② 한학의 온축(蘊蓄)을 문학작품의 창작으로 승화시켰다.
- ③ 습작 활동을 오래도록 한 일은 그의 치밀한 성격을 야기(惹起)하였다.
- ④ 귀국한 동생으로 인해 우리 가족의 단취(團聚)가 실현되었다.

정답: ③

쉽고, 빠르게 합격에 이르는 길! 알파 高 해원국어!

[해설]

‘惹起(이끌 야, 일어날 기)’는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킬 때 쓰는 말이다. 즉 목적어에 ‘일 또는 사건’이 어울린다. 그런데 ③의 목적어는 ‘성격’이 왔기 때문에 ‘야기(惹起)’의 쓰임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정리]

- ① ‘贅言(혹 첩, 말씀 언)’은 ‘쓸데없는 군더더기 말’의 의미를 갖고 있다. 문맥상 ‘작품 이외의 말은 쓸데없는 말이다’란 의미이므로, ‘贅言(贅言)’의 쓰임은 적절하다.
- ② ‘蘊蓄(쌓을 온, 쌓을 축)’은 ‘오랫동안 쌓은 학식’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문맥상 ‘오랫동안 쌓은 한학에 대한 학식을 문학작품 창작으로 승화시켰다’는 의미이므로, ‘온축(蘊蓄)’의 쓰임은 적절하다.
- ④ ‘團聚(둥글 단, 모일 취)’는 ‘집안 식구나 친한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한자리에 모임’이란 의미이다. 동생이 귀국하여 온 가족이 모이게 된 상황이므로, ‘단취(團聚)’의 쓰임은 적절하다.

[어휘]		
①	贅言(贅言)	贅言(혹 첩, 말씀 언)
		쓸데없는 군더더기 말.
②	온축(蘊蓄)	蘊蓄(쌓을 온, 쌓을 축)
		1. 속에 깊이 쌓아 둬. 또는 그런 것. 2. 오랫동안 학식 따위를 많이 쌓음. 또는 그 학식.
③	야기(惹起)	惹起(이끌 야, 일어날 기)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킴.
④	단취(團聚)	團聚(둥글 단, 모일 취)
		집안 식구나 친한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한자리에 모임

5.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날씨가 내일부터 누그러져 주말에는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② 내가 유학을 떠날 때, 친구가 소개시켜 준 학교는 유명한 학교가 아니었다.
- ③ 1반 축구팀은 불안한 수비와 문전 처리가 미숙하여 2반 축구팀에 패배하였다.
- ④ 방송 장비를 휴대한 트럭이 현장에 대기하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합니다.

정답: ①

[해설]

- ‘날씨가 내일부터 누그러져’ → 부사어 ‘내일부터’를 제외하면, 주어 ‘날씨가’와 서술어 ‘누그러져’의 호응이 되어 자연스럽다.
- ‘주말에는 예년 기온을 되찾을’ → ‘주말에는’이란 부사어를 볼 때, 미래의 상황이므로, 생략된 주어 ‘날씨가’ 미래 시제인 ‘되찾다 - 되찾을’에 호응이 되어 자연스럽다.
- ‘날씨가 (~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문맥상 ‘미리 생각되다’의 의미이므로, ‘예상되다’의 쓰임은 자연스럽다. 이를 살펴볼 때, ①은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오답 정리]

- ② 소개시켜 → 소개해: ‘소개하다’란 말에 불필요하게 사동접미사 ‘시키다’를 붙였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합격에 이르는 길! 알파 高 해원국어!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다.

※ tip! 우리말 '-시키다'는 체언 뒤에 붙어 접사로도 기능하지만, 접사 '-시키다'를 '-하다'로 교체해도 문맥상 지장이 없다면, 이때의 '-시키다'는 불필요한 표현이다.

③ 불안한 수비와 문전 처리가 미숙하여 → <수비와 문전 처리>가 미숙하여 / '수비가 불안하고 문전 처리가 미숙하여': '와/과'로 이어질 경우 앞과 뒤의 말은 대등해야 한다. 관형어 '불안한'이 이를 방해하므로, 삭제하거나 서술어로 교체하여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④ 휴대한 → 실은: '휴대하다'는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다.'란 뜻을 갖고 있다. 따라서 '트럭'이 주어진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다. 따라서 '신다'의 활용형인 '실은'으로 교체해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6. ㉠ ~ ㉡의 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春去花猶在 ㉠天晴谷自陰
杜鵑啼白晝 始覺㉡卜居深

- 李仁老, 山居 -

(나) 渭城朝雨浥輕塵, 客舍青青㉠柳色新
勸君更盡一杯酒, 西出陽關無㉡故人

- 王維, 送元二使安西 -

- ① ㉠: 날이 개다.
- ② ㉠: 사는 곳이 깊다.
- ③ ㉡: 버드나무 빛깔이 새롭다.
- ④ ㉡: 돌아가신 분.

정답: ④

[해설]

‘故人(옛 고, 사람 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죽은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오래전부터 사귀어 온 친구’이다. 문맥상 ㉡의 경우 후자인 ‘오래전부터 사귀어 온 친구’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④의 풀이는 적절하지 않다.

※ tip! 왕유의 <송원이사안서>는 ‘원이를 안서 지방에 사신 보내며’ 이별을 노래한 시이다. 돌아가신 분이 등장하기 어색하다.

[독음]

(가) 춘거화유재 / 천청곡자음 / 두견제백주 / 시각복거심

(나) 위성조우읍경진 / 객사청청유색신 / 권군갱진일배주 / 서출양관무고인

[현대어 풀이]

(가) 봄은 가도 꽃은 아직 있고

㉠날은 갠건만(날이 개다) 골짜기는 절로 어둡하네.

소쩍새 한낮에 울고 있으니

비로소 깨닫노라, ㉡사는 곳이 깊을(사는 곳이 깊다) 줄을.

쉽고, 빠르게 합격에 이르는 길! 알파 高 해원국어!

- 이인로, 「산거」

(나) 위성의 아침 먼지쟁이 비추니
 객사 앞 ㉠버드나무 빛깔이 새롭다.
 자 또 한 잔 받으시게나.
 서쪽 양관을 나서면 ㉡오래된 친구도 없으리니.

- 왕유, 「송원이사안서」

[작품 정리]

(가) 이인로, 「산거」

형식	오언절구
성격	서정적, 한정적
구성	기: 늦봄의 풍경. 승: 깊은 골짜기의 모습. 전: 대낮에 우는 두견새. 결: 산 속 깊음을 깨달음.
표현법	① 대구법. ② 대조법.
주제	① 깊은 산 속의 풍경. ② 자연 속에서 은거하고 싶은 심정.

(나) 왕유, 「송원이사안서」

형식	칠언절구
성격	서정적, 관조적.
구성	기: 위성의 아침 전경. 승: 객사 주변의 풍경. 전: 친구와의 이별을 달램. 결: 친구와의 장도 격려.
어조	소박하고 관조적인 목소리.
주제	친구와의 송별(送別)의 아쉬움

7. ㉠~㉡에 들어갈 한자 성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그는 고집이 어찌나 센지 한번 결심하면 (㉠)이다.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속담은 (㉡)와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 아무리 (㉢)한 인물이라도 좋은 동료를 만나지 못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	㉡	㉢
①	搖之不動	間於齊楚	蓋世之才
②	搖之不動	看於齊楚	改世之才
③	擾之不動	間於齊楚	改世之才
④	擾之不動	看於齊楚	蓋世之才

정답: ①

[해설]

㉠ 문맥상 ‘고집을 꺾지 않음, 변함없음’의 의미이므로, ‘흔들어도 꿈쩍하지 아니함’의 의미로

쉽고, 빠르게 합격에 이르는 길! 알파 高 해원국어!

‘搖(흔들릴 요)’를 쓰는 ‘요지부동(搖 흔들릴 요, 之 갈 지, 不 아닐 불(부), 動 움직일 동)’이 어울린다.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란 속담은 ‘아무 상관없는 약자가 중간에 끼어 피해를 당하다’란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말은 ‘間(사이 간)’을 쓴 ‘간어제초(間 사이 간, 於 어조사 어, 齊 제나라 제, 楚 초나라 초)’이다.

㉡ 문맥상 ‘세상을 덮을 만한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蓋(덮을 개)’를 쓴 ‘개세지재(蓋 덮을 개, 世 세상 세, 之 갈지, 才 재주 재)’가 어울린다.

[오답 정리]

㉢ 擾(시끄러울 요)

㉣ 看(볼 간)

㉤ 改(고칠 개)

8. ㉢~㉤의 표제어에 적합한 한자 표기는?

- | |
|---|
| ㉢ 유세: 자기 의견 또는 자기 소속 정당의 주장을 선전하며 돌아다님. |
| ㉣ 조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
| ㉤ 탐본: 비석, 기와, 기물 따위에 새겨진 글씨나 무늬를 종이에 그대로 떠냄. |

	㉢	㉣	㉤
①	遊說	徂歲	拓本
②	遊說	租稅	搨本
③	誘說	徂歲	搨本
④	誘說	租稅	拓本

정답: ②

[해설]

㉢ ‘선전하며 돌아다님’을 이르는 말은 ‘遊(놀 유)’를 쓴 ‘遊說(놀 유, 달랠 세)’이다.

※ 說은 ‘말씀 설, 달랠 세, 기쁠 열’로 쓰이는 글자이다.

㉣ 문맥상 ‘세금’이란 의미이므로, ‘稅(세금 세)’를 쓴 ‘租稅(조세 조, 세금 세)’가 적합하다.

㉤ ‘비석, 기와, 기물’의 글씨나 무늬를 그대로 떠내는 것은 ‘搨本(베끼 탐, 근본 본)’이다.

[오답 정리]

㉢ ‘誘(필 유)’를 쓴 ‘誘說(필 유, 달랠 세)’는 ‘달콤한 말로 꺾’이란 의미이다.

㉣ ‘徂歲(갈 조, 해 세)’는 ‘지나간 해 또는 지나간 시절’이란 의미로, ‘세금’이란 의미와 전혀 무관하다.

㉤ ‘拓本(두드릴 탁, 근본 본)’은 ‘비석, 기와, 기물 따위에 새겨진 글씨나 무늬를 종이에 그대로 떠내는 행위 또는 그렇게 떠낸 종이’를 가리킨다.

쉽고, 빠르게 합격에 이르는 길! 알파 高 해원국어!

9. 우리말과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라매’와 ‘수라’는 몽고어에서 유입된 말이다.
- ② 모음조화 현상은 현대 국어보다 중세 국어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 ③ 15세기부터 주격 조사 형태 ‘가’가 나타나서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 ④ 훈몽자회(訓蒙字會)에는 한글 자모의 명칭과 순서가 나타난다.

정답: ③

[해설]

주격조사 ‘가’가 활발히 사용된 것은 17세기 이후이다. 15세기에는 주격조사 ‘가’는 없고, ‘이, ㅣ, ㅁ’만 존재했다.

※ 15세기 주격 조사 ‘이’

- ㉠ 받침이 있는 체언 뒤에는 ‘이’ [예] 사람 + 이,
- ㉡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는 ‘ㅣ’ [예] 사자 + ㅣ,
- ㉢ ‘ㅣ’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는 아무 것도 쓰지 않았다. [예] 비 + ㅁ

[오답 정리]

- ① ‘새끼 때부터 길들여 사냥에 쓰는 매’를 이르는 ‘보라매’와 ‘임금의 밥’을 높여 이르는 ‘수라’는 고려 후기 몽고어에서 유입된 말이다.
- ② 모음조화 현상은 ‘· (아래 아)’의 소멸로 현대 국어에서 모음조화는 많이 문란해져서 ‘음성 상징어(의성어, 의태어)’와 ‘어간 + 어미’ 정도에서 지켜지고 있다.
- ④ ‘훈몽자회’는 최세진이 지은 어린이용 한자 교습서(중종22, 1527년)로, 한글의 자모의 명칭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자모의 명칭과 순서가 현대 국어와 유사하다.

10. 다음 글에서 ‘신(臣)’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臣)이 부영(傅榮)에게 말하였습니다.

“수차(水車)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수차를 보았습니까?”

“지난번 소흥부(紹興府)를 지날 때, 어떤 사람이 호수 언덕에서 수차를 돌려 논에 물을 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을 적게 들이면서 물을 많이 퍼 올리더군요. 가뭄에 농사짓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차는 물을 푸는 데만 사용될 뿐이니 배울 것이 못 됩니다.”

“우리나라는 논이 많은데 자주 가뭄이 들지요. 만약 수차 만드는 법을 배워 우리 백성에게 가르쳐 준다면 농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대가 조금만 수고해 가르쳐 주면, 우리 백성 대대로 큰 이익이 생길 것이요. 그 제작법을 잘 알아보시되 모자란 점이 있으면 댁사람들에게 물어서 정확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최부, 「표해록」-

- ① 공리공론(空理空論)

쉽고, 빠르게 합격에 이르는 길! 알파 高 해원국어!

- ② 실사구시(實事求是)
- ③ 이용후생(利用厚生)
- ④ 주권재민(主權在民)

정답: ③

[해설]

제시된 글에서 '신하'는 '수차(水車)'가 백성의 농사짓는 데에 도움이 되니 만드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구를 편리하게 쓰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하게 하여, 국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함'이란 의미를 가진 '이용후생(利 이로울 리(이), 用 쓸 용, 厚 두터울 후, 生 날 생)'과 가장 관련이 깊다.

[오답 정리]

- ① 공리공론(空 빌 공, 理 이치 리, 空 빌 공, 論 논할 론)
 - 실천이 따르지 아니하는, 헛된 이론이나 논의.
- ② 실사구시(實 열매 실, 事 일 사, 求 구할 구, 是 옳을 시)
 - 사실에 토대를 두어 진리를 탐구하는 일.
- ④ 주권재민(主 주인 주, 權 권리 권, 在 있을 재, 民 백성 민)
 -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

11. 전화를 사용할 때, 표준 언어 예절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님대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 ② 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 ③ 지금 안 계십니다. 들어오시면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
- ④ 잘 알겠습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답: ①

[해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 전화가 잘못 걸려온 경우라도,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와 같이 말하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되어, 상대방에게 '전화도 제대로 못 거는가?'란 느낌이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 예절에 어긋난 표현이다.

12. 다음 광고 문안에 포함된 담화의 기능이 아닌 것은?

이 선풍기는 바람을 차게 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방 안에 없을 때에는 자동으로 멈춥니다. 그리고 물건이 와 닿으면 소리가 나서 어린이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일 년 이내에 고장이 나면 즉시 새 물건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 ① 호소 기능
- ② 정보 제공 기능

쉽고, 빠르게 합격에 이르는 길! 알파 高 해원국어!

- ③ 약속 기능
- ④ 오락 기능

정답: ④

[해설]

‘선풍기’의 기능에 대해 소개를 한다는 점에서 ‘정보 제공 기능(㉔)’을 갖고 있다. 선풍기의 장점을 소개하면서, 선풍기 구매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소 기능(㉑)’을 갖고 있다. 마지막에 고장이 날 경우 새 제품으로의 교환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약속 기능(㉓)’을 가진다. 그러나 제시된 광고 글에서 ‘재미’를 목적으로 하는 ‘오락 기능(㉕)’은 확인할 수 없다.

※ 광고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물건을 사게끔 소비자를 설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보 전달’과 ‘설득(호소)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13. 다음 글을 문맥에 맞게 배열한 것은?

욕은 공격성의 표현이자, 말로 하는 폭력이다. 아이가 욕을 배워 친구 앞에서 욕을 하는 것은 어른 세계에 대한 반항이자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표현이다.

(가) 그들이 집회에서 내뱉는 폭언은 자신들과 기성세대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 짓는 행동 양식이었다. 기성세대와는 다른 그들만의 독자성을 가진 집단을 만들어 내기 위한 방법이었다.

(나) 그러나 욕은 특수 용어가 아니다. 특수 용어는 개념을 더 정확하게 나타내고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분명하게 한다. 언어 그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욕과 같은 추한 말은 언어를 저하시키고 못쓰게 만든다.

(다) 1968년 이탈리아에서 학생운동이 시작되었을 당시, 학생들이 귀에 담기에 힘든 폭언을 내뱉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자신들은 규범을 깨뜨릴 것이며 이제 기성세대에, 국가 권력에 따르지 않겠다는 성명이었다. 학생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놀라서 그 자리에 못이 박히고 말았다. 입만 열면 욕설이 난무하는 집단 속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바보나 멍청이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흥내를 내며 학생들 편에 설 수도 없었다.

(라) 어떤 집단이나 직업에도 특수한 말이 있다. 의사, 변호사, 공증인 등 이들이 외부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쓰는 것은 동료 간의 의사소통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타 분야와 확실히 구별을 짓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자가 특수 용어를 쓰지 않고 일반적인 말을 쓰면 그 분야 사람들은 화를 낸다. 배신당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 ① (다) - (가) - (나) - (라)
- ② (다) - (가) - (라) - (나)
- ③ (라) - (나) - (가) - (다)
- ④ (라) - (나) - (다) - (가)

쉽고, 빠르게 합격에 이르는 길! 알파 高 해원국어!

정답: ②

[해설]

※ tip! 꼬리잡기가 초점이다!

- (다): (다)에서 학생들이 욕을 한 이유가 ‘자신들은 규범을 깨뜨릴 것이며 이제 기성세대에, 국가 권력에 따르지 않겠다’는 성명이었다.’라는 것을 볼 때, 이는 첫 문단의 ‘어른 세계에 대한 반향’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첫 문단 뒤에는 (다)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 (다)-(가): (가)의 맨 처음에 나온 ‘그들’ (다)의 ‘학생들’이다. 따라서 ‘(다)-(가)’의 연결이 자연스럽다.
- (라)-(나): (나)가 ‘그러나 욕은 특수 용어가 아니다.’로 시작하기 때문에, 앞에 ‘특수 용어’에 대한 설명이 와야 한다. 따라서 ‘특수 용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라)가 (나) 앞에 와야 한다.

14. ‘고공’이 조정의 신하를 비유한다고 볼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집의 옷 밥을 두고 빌어먹는 저 고공(雇工)아 / 우리 집 기별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면서 이르리라
㉠처음의 한아버이 살림살이 하려 할 때 / 인심(仁心)을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 모여
풀 베고 터를 닦아 큰 집을 지어 내고
씨레 보습 쟁기 소로 전답(田畓)을 기경(起耕)하니 / 올벼논 텃밭이 ㉡여드레 같이로다
자손(子孫)에 전계(傳繼)하여 대대(代代)로 내려오니 / 논밭도 좋거니와 고공도 근검터라
저희마다 농사지어 부유하게 살던 것을 /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어이 아주 없어
밥 사발 크나 작으나 동웁이 좋고 굶으나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戶首)를 시기하는 듯 / 무슨 일 감겨들어 흘깃할깃 하는가
너희들 일 아니하고 시절(時節)조차 사나워 / 가뜩이나 내 세간이 줄어지게 되었는데
엇그제 ㉣화강도(火強盜)에 가산(家産)이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크나큰 세간을 어찌하여 일으키려느냐 / 김가 이가 고공들아 새 마음 먹으려무나
- 허전, 「고공가(雇工歌)」-

- ① ㉠: 태조 이성계
- ② ㉡: 조선 팔도
- ③ ㉢: 임금
- ④ ㉣: 왜적

정답: ③

[해설]

- 임금 → 높은(다른) 벼슬아치(지방 수령관): 문맥상 ‘밥사발이 크나 작으나 동웁이 좋고 굶으나’를 두고 ‘마음을 다투는 듯’과 ‘시기하듯’의 대상이 되며, 뒤의 ‘무슨 일 감겨들어 흘깃할깃

쉽고, 빠르게 합격에 이르는 길! 알파 高 해원국어!

하는가'란 부분을 볼 때, '고공'보다는 높고, '주인'보다는 낮은 사람임을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화자가 당파 싸움에 대해 화자가 비판하고 있는 부분으로 ㉡의 '호수'는 '임금'보다는 낮고, '고공'보다 높은 벼슬아치로 다른 당파의 '지방 수령관'을 의미한다.

※ 제시된 작품은 주인인 화자가 자신의 집 '고공(머슴)'을 훈계하는 내용의 작품이다. '호수'는 '고공의 우두머리'란 의미로, '고공'을 '신하'에 비유했다고 했기 때문에 '호수'가 '신하의 주인'인 '임금'이 될 수 없다.

[오답 정리]

- ㉠ '한아버'는 '할아버지'의 옛말이다. 당대 왕조가 '조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처음 할아버지'는 조선을 개국한 왕 즉 '태조 이성계'를 이른다.
- ㉢ '여드레'는 숫자 '8'을 이르고, '갈이'는 '논밭'을 세는 단위이다. 즉 조선을 8도로 나눈 것, 조선 8도를 의미한다.
- ㉤ 시대적 상황이 임진왜란 후인 것을 고려할 때, '왜적'이라 볼 수 있다.

[작품 정리]	
갈래	가사
배경	선조(임진왜란 직후)
성격	교훈적, 계도적, 경세적, 비판적, 우의적
구성	기: 집안(나라)의 내력. 승: 머슴들의 반목으로 인한 폐해(벼슬아치들의 탐욕과 무능으로 인한 폐해). 전: 머슴들에게 열심히 일할 것을 당부(벼슬아치들에 대한 각성 촉구). 결: 사려 깊은 새 머슴을 기다림(어질고 사려 깊은 새로운 벼슬아치를 기다림).
주제	임진왜란 직후 관리들의 나태하고 파당적 행위를 일삼는 이기적인 관리들의 정치적 행태 비판.

[현대어 풀이]	
제 집의 옷과 밥을 제쳐 놓고 이집 저집 빌어먹는 저 머슴아. 우리 집 소식(내력)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 오는 날 일이 없을 때 새끼 꼬면서 말하리라. 처음에 ㉠ 조부모님께서 살림살이를 시작할 때에, 어진 마음을 베푸시니(많이 쓰시니)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 풀을 베고 터를 닦아 큰 집을 지어 내고, 씨레, 보습, 쟁기, 소로 논밭을 갈아 일구니(기경하니), 올벼논과 텃밭이 ㉢ 여드레(8일) 동안 갈 만한 큰 땅이 되었다. 자손에게 물려주어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머슴들도 근검하였다. <기: 집안의 내력> 저희들이 (각각) 농사지어 부유하게 살던 것을, 요새 머슴들은 생각이 어찌 아주 없어서, 밥그릇이 크거나 작거나 입은 옷이 좋거나 나쁘거나, 마음을 다투는 듯 ㉡ 우두머리를 시기하는 듯, 무슨 일에 감겨들어 반목을 일삼느냐? 너희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서(흉년조차 들어서), 가뜩이나 내살림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엇그제 ㉤ 강도를 만나 가산이 탕진하니, 집은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네. 크나큰 세간살이를 어떻게 해서 일으키려는가? 김가 이가 머슴들아, 새 마음을 먹으려무나. <승: 머슴들의 반목으로 인한 폐해>	

15.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하고 김 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우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벽거리고

쉽고, 빠르게 합격에 이르는 길! 알파 高 해원국어!

가기가 싫었음일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고만 만족하였음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덩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음이다. 그리고 집을 나올 제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켜기었다. — 앞집 마마님한테서 부르러 왔을 제, 병인은 그 빼만 남은 얼굴에 유일의 생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 애걸하는 빛을 띠우며,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라고 모기 소리같이 중얼거리고 숨을 거르렁거르렁하였다.
…(중략)…
“이 눈깔! 이 눈깔! 왜 나를 바루 보지 못하고 천정만 보느냐, 응?”
하는 말끝엔 목이 메이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의 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뺨뺨한 얼굴을 어롱어롱 적시인다. 문득 김 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데 부벼대며 중얼거렸다.
“설령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 현진건, 「운수 좋은 날」 -

- ①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는 복선이 나타나 있다.
- ② 비극적 상황을 심화시키는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
- ③ 객관적인 서술 태도로 인물의 행동만을 그리고 있다.
- ④ 행운과 불안감이 교차되면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정답: ③

[해설]

제시된 작품의 서술자는 ‘인물의 행동’뿐만 아니라, ‘인물의 내면 심리(아니다 ~ 겁이 났음이다.)’까지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서술 태도로 인물의 행동만을 그리고 있다.’는 ③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인물의 외적인 행동만을 서술하는 것은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데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은 작품은 인물의 행동과 내면 심리를 모두 서술하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오답 정리]

- ① 아내가 김 첨지에게 나가지 말라고 애원했던 것이 아내의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 역할을 한다.
- ② 아내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심화시키는 소재로 ‘남편의 사랑’을 의미하는 ‘설령탕’이 제시되고 있다.
- ④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덩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음이다.”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품 정리]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성격	반어적, 비극적, 사실적
특징	① 대화의 기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작중인물을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제시함. ② 대화 속에 비속어나 욕설을 삽입하여 하층 노동 계급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냄.
배경	시간: 일제 강점하의 어느 비 오는 겨울날.

쉽고, 빠르게 합격에 이르는 길! 알파 高 해원국어!

	공간: 서울 빈민가.
주제	일제 식민지하에서의 하층 민중의 비참한 삶.

16.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천상병, 「귀천」 -
---	---------------

- ① 죽음에 대해 달관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4음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미련도 집착도 없는 무욕의 경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④ 독백적인 어조로 담담하게 진술하고 있다.

정답: ②

[해설]

▸ 제시된 작품은 ‘나 / 하늘로 / 돌아가리라 // 새벽빛 / 와 닿으면 / 스러지는 // 이슬 더불어 / 손에 손을 / 잡고//’의 ‘4음보’가 아닌 ‘3음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정리]

- ① ‘죽음’을 ‘소풍 끝내는 날’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죽음을 초월한 달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세상에 대한 미련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욕(無欲, 욕심이 없음)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 ④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형식이 아니므로 ‘대화체’가 아니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형식이므로 ‘독백체’가 맞다.

[작품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시각적, 서술적, 관조적, 독백적, 낙천적
특징	① 시각적 심상을 두드러지게 사용. ②반복적으로 비유적 이미지의 표현을 구사함.
주제	① 삶에 대한 달관. ② 죽음의 정신적 승화. ③ 삶에 대한 긍정적 관조. ④ 삶과 죽음에 대한 달관.

17.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文學教育論에 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반면, 이를 저해하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다. 그 같은 움직임은 주로 文學教育이 강화되면 國語科教育이 陳腐한 敎訓을 앞세운 道德主義 修身教科로 轉落될지 모른다거나 혹은 文學 少年少女의 感傷癖을 만연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國語科를 언어 생활의 능력 향상에만 묶어 두려는 견해다. 이들의 주장인즉, “文學活動은 인간이 가지는 여러 가지 言語活動 중의 한 類型에 불과하며, 文學作品이 國語科의 教材로 많이 다루어 지는 이유는 그것이 어휘량이 많고 문장 표현의 양상이 다채롭다는 조건뿐이다. 文學이 國語教育의 核心은 될 수 없다. 國語教育은 어디까지나 言語教育이다.”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학작품을 다루면서 왜 言語技能의 形式陶冶에만 그치고 그 본질적 가치는 외면하겠 다는 것인지 명분이 선명치 않다. 이것은 분명히 언어의 본질을 用具的, 提報的인 것으로 만 보고 感化的인 것을 무시하려는 태도에서 유래한다.

- ① 문학을 언어활동의 도구로만 보려는 관점을 비판하고 있다.
- ② 도덕주의를 중시하는 국어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 ③ 문학교육은 국어교육의 핵심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 ④ 국어교육은 언어활동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정답: ①

[해설]

제시된 글은 “文學活動(문학활동)은 인간이 가지는 여러 가지 言語活動(언어활동) 중의 한 類型(유형)에 불과하며, 文學作品(문학작품)이 國語科(국어과)의 教材(교재)로 많이 다루어지는 이유는 그것이 어휘량이 많고 문장 표현의 양상이 다채롭다는 조건뿐이다. 文學(문학)이 國語教育(국어교육)의 核心(핵심)은 될 수 없다. 國語教育(국어교육)은 어디까지나 言語教育(언어교육)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

“文學(문학)이 國語教育(국어교육)의 核心(핵심)은 될 수 없다.”란 주장은 결국 ‘문학이 언어 활동의 도구에 불과하다.’란 의미이므로 따라서 ‘문학이 결코 언어활동의 도구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는’ ①의 설명이 옳다.

[오답 정리]

- ② ‘문학을 언어활동의 도구로만 보려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문학 교육을 강조했을 때, 국 어 교육이 도덕주의의 수신교과로 전락할 거라 우려하고 있다. 서술자는 도덕주의를 중시하는 국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 ③ ‘문학교육은 국어교육의 핵심이 될 수 없다.’란 주장은 서술자가 비판하는 관점이다.
- ④ 서술자는 ‘언어활동’뿐만 아닌, ‘본질적 가치’의 한 측면인 ‘감화적인 부분’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文學教育論(문학교육론)에 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반면, 이를 저해하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다. 그 같은 움직임은 주로 文學教育(문학교육)이 강화되면 國語科教育(국어과교육)이 陳腐(진부)한 敎訓(교훈)을 앞세운 道德主義(도덕주의) 修身教科(수신교과)로 轉

쉽고, 빠르게 합격에 이르는 길! 알파 高 해원국어!

落(전락)될지 모른다거나 혹은 文學(문학) 少年少女(소년소녀)의 感傷癖(감상벽)을 만연시키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國語科(국어과)를 언어생활의 능력 향상에만 묶어 두려는 견해다. 이들의 주장인즉, “文學活動(문학활동)은 인간이 가지는 여러 가지 言語活動(언어활동) 중의 한 類型(유형)에 불과하며, 文學作品(문학작품)이 國語科(국어과)의 教材(교재)로 많이 다루어지는 이유는 그것이 어휘량이 많고 문장 표현의 양상이 다채롭다는 조건뿐이다. 文學(문학)이 國語教育(국어교육)의 核心(핵심)은 될 수 없다. 國語教育(국어교육)은 어디까지나 言語教育(언어교육)이다.”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학작품을 다루면서 왜 言語技能(언어기능)의 形式陶冶(형식도야)에만 그치고 그 본질적 가치는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명분이 선명치 않다. 이것은 분명히 언어의 본질을 用具的(용구적), 提報的(제보적)인 것으로만 보고 感化的(감화적)인 것을 무시하려는 태도에서 유래한다.

[어휘]	
감상벽(感傷癖)	感傷癖(느낄 감, 상처 상, 버릇 벽) 조그만 일에도 쉽게 감상에 젖는 버릇.
용구(用具)	用具(쓸 용, 갖출 구) 무엇을 하거나 만드는 데 쓰는 여러 가지 도구.
제보(提報)	提報(끌 제, 값을 보) 정보를 제공함.

18. ㉠~㉢의 문장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아이의 학교를 방문하는 날이었다. ㉠ 아침부터 흐린 게 비가 올런지 몰라 우산을 미리 챙겨 나갔다. ㉡ 길을 나서자 갑자기 곧 해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 시장 입구에는 앓된 소녀들이 우산을 들고 왁자지껄 이야기를 하며 지나가고 있었다. ㉣ 소녀들의 모습에서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갔던 기억이 두루뭉술하게 떠올랐다.

- ① ㉠의 ‘올런지’는 표기법에 맞게 ‘올른지’로 고친다.
- ② ㉡의 ‘해님’은 표기법에 맞게 ‘햇님’으로 고친다.
- ③ ㉢의 ‘앓된’은 표준어에 맞게 ‘앓뒸’으로 고친다.
- ④ ㉣의 ‘두루뭉술하게’는 의미상 자연스럽게 ‘어렴풋이’로 고친다.

정답: ④

[해설]

· ‘두루뭉술하게’는 ‘말이나 행동 따위가 철저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게’란 의미이다. ‘두루뭉술하게’는 주어가 ‘말이나 행동’일 때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의 주어는 ‘기억이’이므로, ‘기억이나 생각 따위가 뚜렷하지 아니하고 흐릿하게’란 뜻을 가진 ‘어렴풋이’가 더 자연스럽다. 따라서 ④의 수정은 적절하다.

[오답 정리]

① ‘뒤 절이 나타내는 일과 상관이 있는 어떤 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는 ‘-르런지’가 아니라 ‘-르는지’이다. 따라서 ‘올런지’를 ‘올는지’로 고쳐야 한다.

쉽고, 빠르게 합격에 이르는 길! 알파 高 해원국어!

※ ‘-ㄹ런지’는 없는 어미이다.

- ② 사이시옷은 합성어에만 붙일 수 있다. 명사 ‘해’에 접미사 ‘-님’이 붙은 것이므로, 사이시옷을 붙인 ‘해님’의 표기는 옳다.
- ③ ‘어려 보이다’란 뜻을 가진 말인 ‘앳되다(앳된)’는 표준어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왁자지껄’을 ‘왁자지껄’로 수정해야 한다. ※ ‘앳따다’는 존재하지 않는 낱말이다.

19.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나 혹은 이타적이나 하는 이분법적 질문은 흑백 논리를 지양하고 (㉠)을 강조하는 오늘날에는 그저 지적 호사가들의 관심이나 끝 법한 낡은 질문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인간에게 내재된 본성 같은 게 실제로 있거나 한 것인지 근본적인 (㉡)을/를 품어볼 수도 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생각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영역에 속한다고 여겨 왔기 때문에 인간 본성에 대한 답변도 대체로 철학이나 종교의 영역이 맡아 왔다. 그 가운데에는 지혜의 원천으로서 인류의 삶에 훌륭한 (㉢)이/가 되어온 것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인간 중심적 사고에 (㉣)되었다는 근원적 한계를 갖는다.

	㉠	㉡	㉢	㉣
①	다원성	의문	전범	착종
②	다양성	회의	지침	고착
③	중층성	질문	모범	연루
④	융합성	반문	통찰	편향

정답: ②

[해설]

- ㉠ ‘흑백 논리’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논리이다. 이를 ‘지양(止揚)’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양함’에 해당하는 말이 와야 한다. 따라서 ‘다원성/다양성’이 모두 가능하다.
- ㉡ 문맥상 ‘의심을 품다’란 의미이므로, ‘의문’이나 ‘회의’가 어울린다.
- ㉢ 문맥상 ‘길잡이’의 의미이므로, ‘지침’이나 ‘모범’이 어울린다.
- ㉣ 문맥상 ‘벗어나지 못함’이란 의미의 말이 와야 하므로, ‘고착’이 가장 적절하다.

[어휘]		
㉠	다원성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많은 근원을 가지고 있는 성질.
	다양성	여러 가지 양상을 가진 특성.
	중층(重層)	여러 층.
	융합성	둘 이상의 사물을 서로 섞거나 조화시켜 하나로 합하는 성질.
㉡	의문(疑問)	의심스럽게 생각함. 또는 그런 문제나 사실.
	회의(懷疑)	의심을 품음. 또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심.
	질문(質問)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물음.
	반문(反問)	1. 물음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되받아 물음. 또는 그 물음. 2. 상대의 주장이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며 질문함.
㉢	전범(典範)	1.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

쉽고, 빠르게 합격에 이르는 길! 알파 高 해원국어!

		2. 전형적인 법이나 규범.
	지침(指針)	1. 지시 장치에 붙어 있는 바늘. 시계의 바늘이나 나침반의 바늘, 계량기의 바늘 따위가 있다. 2. 생활이나 행동 따위의 지도적 방법이나 방향을 인도하여 주는 준칙.
	모범(模範)	본받아 배울 만한 대상.
	통찰(洞察)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
㉔	착종(錯綜)	1. 이것저것이 뒤섞여 엉클어짐. 2. 이것저것을 섞어 모음.
	고착(固着)	1. 물건 같은 것이 굳게 들러붙어 있음. 2.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굳어져 변하지 않음. 3. 특정한 대상이나 생각에 집착하여 벗어나지 못함. 또는 그런 상태.
	연루(連累)	남이 저지른 범죄에 연관됨.
	편향(偏向)	한쪽으로 치우침.

20. 다음 글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페니실린은 약품으로 정제된 이후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많은 세균과 질병을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생제 사용이 잦아지자 세균들이 내성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항생제는 사람에게에는 해를 주지 않으면서 세균만 골라 죽이는 아주 유용한 물질인데, 이 물질을 이겨내는 세균들이 계속 등장했다. 플레밍 또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페니실린에 내성인 세균이 등장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는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현실화되었다. 페니실린에 내성을 가진 황색 포도상 구균이 곧 등장했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여 감염증을 치료하려는 인류와, 항생제 내성을 획득하여 생존하려는 세균 간의 전쟁이 지금까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세균은 인류가 개발한 항생제에 내성을 갖추어 맞서고, 인류는 내성을 가진 세균에 대응하기 위해 또 다른 항생제를 만들어 반격을 하는 식이다.

이러하면 페니실린에 내성을 가진 황색 포도상 구균은 메티실린 제제가 개발되면서 치료의 길이 열렸다. 메티실린은 포도상 구균을 물리치며 맹활약했지만 세균도 가만있지는 않았다. 메티실린의 효과가 듣지 않는 강력한 세균들이 등장했고, 이에 인류는 반코마이신을 개발해 탈출구를 열었다. 이들 치료제로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그람 음성 세균은 카바페넴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최강의 항생제인 카바페넴에 내성을 획득한 다제 내성균(슈퍼 박테리아)도 등장했다.

- ① 인류는 더 강력한 세균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 ② 항생제 사용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 ③ 인류는 다제 내성균을 치료할 항생제를 개발할 것이다.
- ④ 앞으로 항생제에 내성이 없는 세균이 나타날 것이다.

정답: ③

[해설]

3문단의 ‘**세균**은 인류가 개발한 항생제에 내성을 갖추어 **맞서고**, **인류**는 내성을 가진 세균에

쉽고, 빠르게 합격에 이르는 길! 알파 高 해원국어!

대응하기 위해 또 다른 항생제를 만들어 반격을 하는 식이다.'란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가 4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4문단에 이어서는 '다제 내성균(슈퍼 박테리아)'를 물리칠 새로운 항생제에 대한 내용이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오답 정리]

- ① 항생제 개발을 통해 인류가 극복한 예시를 볼 때, 적절하지 않다.
- ② 항생제 사용의 문제점과 그를 비판한 글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다제 내성균(슈퍼 박테리아)도 등장했다.'로 마무리 짓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와야 한다.